

제 9대 심이택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선임

2000년 방진희 정기총회 개최



이어 78개 회원사중 10명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간접선거 방식으로 이사 19명을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들 간의 호선에 의해 심이택 대한항공 사장이 제9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으로 선임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신임 심이택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국내외 안보 환경은 방위산업의 육성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나 우리 방산업계는 국내 소요물량의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어려운 시기에 침체된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전 회원사가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새로 선임된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99년도 우수방산업체로 경영 분야에 평화산업(대표: 조치호), 연구개발분야에 연합정밀(대표: 김인술), 방산물자 수출 분야에 현대종합상사(대표: 정재관)가 각각 선발되어 국방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2000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4일 국방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99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승인의 건, '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및 기타사항을 승인하였다.

고등 훈련기, T-50 Golden Eagle로 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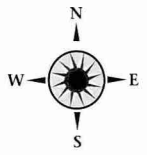
시제 항공기 2002년 6월 생산 첫 비행 예정

공군 은 지난해 4,100여건이 넘는 국민들의 응모를 통해 선정한 KTX-2 별칭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은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해 왔던 고등훈련기 개발사업 명칭인 KTX-2 대신에, 고등훈련기는 T-

50(T: Trainer), 경 공격기는 A-50(A: Attack)으로 정식명칭을 정하고, 국민들의 응모를 통해 별칭을 Golden Eagle로 확정지었다.

Golden Eagle(골든이글)은 국내에서 '검독수리'로 불리는 맹금조류로 목의 깃털이 황금색이며, 독수리과에서 유



워싱턴 및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개최되어 T-50 사업과 관련된 한·미간 정책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항공기산업의 본 고장인 미국에 T-50을 수출할 날도 머지 않았다.

T-50 Golden Eagle의 외형은 지난 '99년 8월말에 확정되었고, 현재 상세 설계 및 시제항공기가 제작중에 있다. 또한 2002년 6월

일하게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하는 '날쌔돌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형 고등훈련기의 우수한 성능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별칭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별칭공모에 박근범(朴根範, 2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씨를 포함하여 5명이 똑같이 '골든이글'을 응모하여 당선되었으며, 부상으로 100만원씩 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T-50 항공기 사업은 자주국방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초음속 항공기 사업으로, 현재 공군의 관리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의 록히드사가 21세기 한국 공군 수요층쪽은 물론 전 세계 군용항공기 시장진출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초에 한국형 고등훈련기를 수출하기 위한 한·미 관련업체 경영진 회의가 미국

에는 시제항공기 1호기의 첫 비행이 계획되어 있어서, 명실공히 21세기 세계의 하늘에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위상을 드높일 첨병이 될 전망이다.

T-50 Golden Eagle(KTX-2) 제원

기 장	42.6ft
기 폭	31.0ft
기 고	15.7ft
자 중	13,800lbs
최대이륙중량	26,500lbs
최 대 속 도	Mach 1.4
실용 상승고도	48,000ft
최 대 G-limit	+ 8/-3G
무장(경 공격기)	기총,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폭탄 등 장착

제3차 한·이탈리아 방산협의회 개최

양국간 정보 교류와 실질적 방산협력 확대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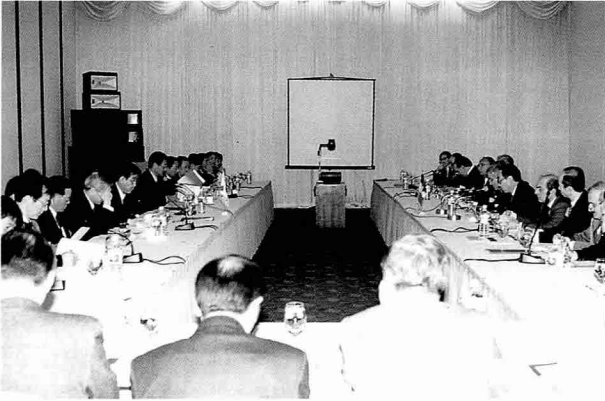
한·이

탈리아 제3차 방산협의회가 양국 방산업계 대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14일 홀리데이 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 배일성 방진회 상근부회장과, 이탈리아측 카를

로 페스투찌 방위산업협회 사무총장을 공동의장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2000년 3월 계획된 김대중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앞두고 이탈리아측의 제안에 의해 양측이 합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양국 방위산업의 현황에 대해 김종



문 방진회 해외사업팀장과 피로 이탈리아 국방부 해군대령의 발표에 이어, 양국 방산업체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배일성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보 산업

의 발달로 지리적 거리의 개념이 점점 모호해 지고 국가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는 현재 최첨단 선진기술 획득과 개발비용 절감을 위해 방산 선진국과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측은 한국이 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자국을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고 한국과 협력시 대폭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참석자들은 한·이탈리아 방산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양국 방산업체 간 교류와 협력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상호보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의회 활동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국방과학기술 특화연구센터 종합발표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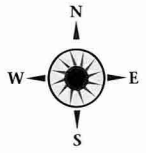
범 국가적 과학기술 자원을 국방연구개발에 접목

국방 과학기술 특화연구센터 종합발표회가 지난 2월 18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국과연 제2기술연구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특화연구센터는 대학의 무한한 잠재력을 국방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접목시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한 과학기술자원의 활용영역을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94년 전자광학(KAIST, 전자파(포항공대), 자동제어(서울대)에 이어 수중음향(서울대), 무기체계개념(군사과학대학원) 등 5개 특화연구센터가 개설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종합발표회는 지난 5년간의 연구결과를 홍보하고 특화연구센터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사업을 중





합적으로 점검하고, 참여 연구원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편 각 센터의 명예를 걸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5개 센터 소장들의 센터별 현황 소개를 시

작으로, “광섬유 센서 시스템 연구” 등 총 34개 주요 연구 과제 책임자들의 연구결과 발표로 진행되었고, 발표장 옆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각 센터별로 부스를 설치하여 43개 품목의 중요 개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전시하였다.

삼성 톰슨 CSF 출범

세계적 경쟁력 갖춘 다국적 방산업체로 부상

삼성

전자와 프랑스의 세계적인 방산업체인 톰슨-CSF사와의 합작법인인 삼성톰슨CSF 주식회사가 지난 2월 7일 공식 출범했다. 구미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수행해온 정밀 전자 방위산업장비의 국내 공급 및 수출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98년 7월 합작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후 1년 7개월만에 정부 승인을 거쳐 설립된 삼성톰슨CSF는 국내 최초의 방산 합작회사로서 향후 한국·프랑스간 방산분야의 협조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양사간 50 대 50의 지분으로 설립된 이 회사의 초대 대표이사는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방위산업분야를 이끌어온 박태진 부사장이 맡게 되며 Vice CEO에는 톰슨CSF측의 Mr. Philippe Lugan이 선임되었다.

신임 박태진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국내 방산업계도 Global Standard에 맞는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방산장비의 해외시장 본격 진출을 통해 21세기 Global 종합방산업체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금번, 삼성톰슨CSF 주식회사의 출범으로 국내 방산분야에서도 제

품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이 아닌 외자 유치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킴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로 세계 유수 방산업체들과도 어깨를 겨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삼성톰슨CSF는 Thomson-CSF사의 방산 선진기술의 이전과 삼성전자의 첨단 통신, 제어기술 등을 활용한 차세대 기술/제품에 대한 공동개발을 통하여 국내외의 방산기술력을 한단계 높이고, 삼성에서 자체개발한 우수한 방산전자 제품을 Thomson-CSF사의 세계적인 판매망을 통해 수출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구비한 다국적 방산업체로서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